



코로나19 빈곤국에 제주섬 평화 가치 나눈다

제주 글로벌이너피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동티모르 코로나 대응 아따우루 섬 긴급 지원
식수 시설 개선과 식량

제주섬이 모색해온 평화의 가치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섬나라에 닿는다. 제주 글로벌이너피스(대표 강경희)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시민사회협력력을 통한 개도국 코로나19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8월부터 동티모르에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따우루 섬의 관정이 낡아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른쪽은 현지 영유아 가정엔 전달할 가정용 정수기. 사진=글로벌이너피스 제공

이번 사업은 빈곤국인 동티모르의 달리주에 속한 섬 지역인 아따우루(Atauro)가 대상지다. 글로벌이너피스는 동티모르지부를 통해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워진 동티모르 취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식수 시설과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벌여나간다.

동티모르의 기아빈곤층 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글로벌기아지수(GHI)를 보면 여전히 심각한 단계에 처해있다. 5세 미만 영유아의 저체중률이 45%를 웃돌고 6~11개월 영아는 빈혈 유병률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운송이 제한되자 동티모르의 식량 공급망은 크게 위축돼 있다. 외

국계획(WFP)이 실시하고 있는 '푸드 바스켓(Food Basket)' 프로그램에 따라 쌀, 식용유, 콩, 소금, 설탕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 수요와 상황에 따라 품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아따우루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보수와 신규 관정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UN이 개발해놓은 비켈리 지역의 관정이 노후화되었고 이를 대신해 사용 중인 1968년 포르투갈 식민시대의 우물 또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따우루 취약계층에서 이질, 설사 등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이너피스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수혜자만 2100명이고 간접 수혜자도 45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희 대표는 "그동안 현지 지부를 통해 지역에서 착실히 진행해온 사업을 토대로 동티모르에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제주섬'의 가치를 동티모르에 나누고 싶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정 보수·설치만이 아니라 영유아 양육 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정수기 보급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이너피스는 이번 사업으로 직접 수혜자만 2100명이고 간접 수혜자도 45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희 대표는 "그동안 현지 지부를 통해 지역에서 착실히 진행해온 사업을 토대로 동티모르에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제주섬'의 가치를 동티모르에 나누고 싶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환관

<219>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이번 여름이 더워 어떤 지냈는지, 자 어디 알아보카? 으앵이야- 해님이 늑다행기난 동네 삼촌들이 뭣이엔 골앗주이? 즘네야- 는 요스시 더워 어떤 지내져니게? 풍냥 알 그디 부름을 가슴에 가득 담은 무성길 어떤 하여져니?"
즈네 골았저. "에, 하르바지- 촉말 부름을 하여 담아지나 나 무심이 넘어 포근하여집테다. 그 부름 소음이 어떤 목청도 들은 짓고 아버지 소리도 들림테다. 스뭇 무음이 차분하여지명 내에서 물 출출 흘리는 소리랑 낭성 흔들리는 소리, 생이 소리도 들리난 기분이 막 좋안게마쑤."

* 제주어 풀이

- * 늑다(늑닥거리다, 늑닥질다, 늑대다, 늑드다, 늑뜨다, 늑탁거리다, 늑탁질다, 늑대다) : <음>잘난 척하며 날뛰거나, 능력 없으면서도 경솔하게 대어들거나, 사리를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덤비다.
- * 멩기다(멩기다, 멩이다, 멩이다, 두니다) : <음적>다니다. 돌아다니다.
- * 가슴에 가득 담은 : 가슴에 가득 담아서.
- * 무성길 어떤 하여져니? : 무엇을 어떻게 하였니?
- * 그 부름 소음이 : 그 바람 속에.
- * 어떤 목청도 들은 짓고 : 어머니의 소리도 들어 있고.
- * 스뭇(스뭇, 후뭇, 후뭇) : <어찌>사뭇, 매우, 아주.
- * 낭성(낭성, 낭성 상기) : <이름>나뭇잎.

-부호- / <어음>어음(명사) / <그림>그림(형용사) / <음적>음적(동사) / <어찌>어찌(부사) / <대어>대어(대명사) / <멩>멩(수사) / <스>스(감탄사) / <토>토(조사) / <메>메(조사) / <익>익(조사) / <속>속(조사)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가 쏘다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JFAC 아트 체인지업'을 1~15일 공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재단이 협약해 긴급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오디오, 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은 관객개발형, 창작활동형, 플랫폼 기반형으로 나뉜다. 문예재단 홈페이지 참고. 800-9131.

오은미 개인전 '유토피아'

오은미 작가가 '유토피아'란 이름으로 제주도 중양로 제주KEB하나은행 지하1층 톨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돼 9월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 오 작가는 개인의 무의식, 꿈의 세계를 실크 크린 기법 관화와 드로잉, 영상 등 30여 점에 풀어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일반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숙명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오 작가는 "코로나19로 예술체험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전시가 작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성호 작가 '탐라를 탐하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인 조성호 작가가 제주도 노형동에 있는 현인갤러리 초대전으로 '탐라를 탐하다'를 펼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 조성호 작가는 '제주의 봄', '정방폭포', '한라산과 철쭉꽃', '일출봉', '한라산과 청보리', '우도의 석양' 등 제주에서 만난 풍경을 신작을 위주로 펼쳐놓고 있다. 김형무 관장은 "원로 화백만이 구사할 수 있는 깊고도 농익은 색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작가는 2017년 6월에도 현인갤러리 초대전을 가졌다.

담원선목화연구회 전시

제주담원선목화연구회(회장 김한수)가 지난달 31일부터 KBS제주 전시실에서 두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선목화(禪墨畫)·다묵화(茶墨畫) 제주도에 피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12명의 회원들이 한지에 수묵담채로 표현한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지도를 맡고 있는 담원 김창배 작가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리산의 가을풍경' 등 찬조 작품도 걸렸다. 김한수 회장은 "묵향 그윽함을 벗 삼아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랜선으로 만나는 '젊은 거장'의 무대

클라라 주미 강·손열음 내도 제주아트센터 온라인 공연

대한민국 클래식을 대표하는 '젊은 거장'의 제주 무대를 안방에서 만나보자. 9월 2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7개 도시 투어 공연을 이어가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듀오 리사이틀이다.

이들은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멜로디',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18' 등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들려준다. 제주시청 유튜브 채널 등으로 볼 수 있다.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우승과 동시에 다섯개 특별상을 수상한 연주자다. 손열음은 2011년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을 휩쓸었다. 문의 064)728-1509. 전선희기자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 영 권

초 우 회 회원일동

주식회사 부국건설 대표 강성호	후 드 림 대표 고정철	명 품 육 개 장 대표 김영철
세현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형규	흑 돈 시 범 이 네 대표 박시범	주식회사 케이엘에스 대표 변기정
조운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충훈	정 인 축 산 유 통 대표 정명관	에 가 건 축 대표 정진호